

북한 엘리트의 탈출 증가와 개방 욕구

도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9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탈출자들의 성분이 최근 들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별복공, 근로자, 하전사(사병), 주민 등 하층 계급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북한 엘리트의 탈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교관, 고급 군관, 합영회사 간부, 김일성대학 상급 교원,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사회안전부 간부 등 지금까지 북한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던 사람들의 잇단 탈출은 북한 사회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이 망명하고 평양 한복관에서 사회안전부 하사관의 총기 난동 사건마저 발생하자, 북한이 급격한 붕괴 과정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비정상적인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선 미심쩍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핵심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군부는 여전히 강력하며 이들이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 상층부 일탈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엘리트들의 자신감 상실이다. 김일성 사망후 만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우선에 대한 회의감과 구조적 빈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일부 학자들이 神政 국가라 부를 정도로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이데올로기를 모든 것에 앞세워왔다. 이른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철학 원리를 가진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을 규율하고 지배했으며, 인민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은 빵이나 경제적 富는 고사하고 국제적 고립만 가중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

고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해온 그들에게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당혹감과 함께 자신감의 상실을 몰고온 것이다. 그래도 박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지고 통치했던 김일성 생전에는 그나마 나왔다. '수령'이 북한을 통치하는 한 국가의 '자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나마 있었다. 또 김일성의抗日 전력은 그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덕목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후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은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다. 핵 문제 타결에서 체면을 세우는가 했더니 작년 수재 이후에는 북한 정권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구경 행각'을 하고 있다. 국제 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에 쌀과 모포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행위를 이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낙원', '부러움없는 사회'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해 체제 우위를 강조하던 김일성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식량 원조를 둘러싸고 군부와 정부 원간에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상 논문을 발표하고 사상 사업을 모든 것에 우선해 실시하고 있는 것도 역으로 보면 그만큼 사상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반증이다.

작년 10월에 귀순한 북한군 前 상좌 崔生活씨는 북한 상층부의 태도가 놀랄 정도로 최근 들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정·군 고급 간부 6,000여 명은 매달 흡수 週 토요일 인민대학습당에서 90 분간에 걸쳐 사상 학습을 받고 있으나,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전에는 대부분이 노트에 필기를 할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광경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상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하나를 두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데올로기로 오늘날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북한 상층부에 퍼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의 일반 엘리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 핵심 자세들까지 쉽게 탈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족들과의 결별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출을 감행하는 것은 희망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때문인 것이다. 탈출한 북한 상층부 인사들 가운데 유독 해외 근무자가 많은 것은 바깥 바람을 쏘여보면 북한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 회의감의 밑바탕에는 어려운 북한 경제가 깔려 있다. 북한 경제는 90년대에 들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100 년만의 대홍수로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 기구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기근이나 영양 실조 상태에 있으며, 즉각적인 지원이 실시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美 행정부 내 입각에서도 이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일시적인 지원으로 한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해도 북한의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력 갱생에 입각한 북한의 산업 구조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다. 시설은 낡고 사회간접자본은 형편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달러 부족에서 시작된다. 공장의 낡은 시설을 바꿔 생산성을 높이려 해도 달러가 없어 새로운 시설을 사들일 수 없으며, 북한의 주 에너지인 석탄 생산을 늘리려 해도 시설 개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석탄 생산이 잘 안되면서 전기 생산이 줄어들고 전기 생산이 크게 늘지 않으니 공장 가동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가장 문제인 식량의 경우도 5억 달러 정도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데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쌀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방과 경제 마인드에 대한 인식이 상층부에 퍼져있는 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개방의

확대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장래가 더 중요한 것이다. 부패가 만연하고 달러가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반작용이다.

북한이 1992년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를 주창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도 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탄압과 공포 정치의 반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제는 철저하다. 주민들의 최소 단위인 인민반에서부터 5호감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등 각종 정보 기관의 주민 감시는 전보다 훨씬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사람이 늘고 있고 공개 총살형이 전에 없이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원인들이 상호 교호 작용을 하면서 하층 계급의 탈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상층부까지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직은 일부 현상일 뿐이지 일반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당장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은 붕괴 주도 세력이 당장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시민 사회 경험없이 일제시대에서 바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갔다. 시민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한 사상 교육과 감시 체제 하에 있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세력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군부는 김정일이 확고히 잡고 있으며 군부가 당장 현재의 북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이들은 북한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북한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상층부가 흔들릴 정도로 엘리트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당장 붕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50년 동안 다져온 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어떻든 일반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상층부의 탈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사상 우위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고수에는 내부 변화 욕구를 무한정 늦출 수 없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개방 확대와 탄압의 강화이다. 불만 분자의 추방도 생각할 수 있다. 불만 분자의 추방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취했던 방법으로 韓·滿 국경이나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대량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김정일이 아직도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 취임을 늦추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계 지연은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효도'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인 동시에 존립 근거인 주체사상을 유지하면서 물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 있는가'가 김정일이 당면한 고민인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 쫓기'는 결국, 북한 내부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 그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統**